학술논문 검색서비스
earticle

통역과 번역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20 | 제 22권 2호

통역과 번역
제22권 2호

ISSN : 1229-6074(Print)

유튜브 댓글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봉준호의 통역사 샤론 최(Sharon Choi)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연구

권상미

To cite this article : 권상미 (2020) 유튜브 댓글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봉준호의 통역사 샤론 최(Sharon Choi)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연구 , 통역과 번역, 22:2, 1-28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Download by : 163.152.121.83 Accessed :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http://dx.doi.org/10.20305/it202002001028

통역과 번역, *22*(2), 2020

유튜브 댓글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봉준호의 통역사 샤론 최(Sharon Choi)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연구

권 상 미
(한국외국어대학교)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Kwon, Sang-mi. (2020). Public perception of Bong Joon Ho's Interpreter on Youtube: Keyword and topic modeling analysis on user comment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2*(2), 1-28.

As Director Bong Joon Ho's film "Parasite" made history at the Academy Awards, becoming the first non-English language film to claim four oscars, his interpreter Sharon Choi also came into spotlight. This study aims to see how the public perceives interpreters on social media through the case of Sharon Choi by sampling the video-sharing website Youtube(www.youtube.com). A dataset of 4,192 comments was collected from the top 10 most viewed youtube videos on 'Bong Joon Ho's acceptance speech' using Selenium, a Python library. Keyword analysis, association analysis and LDA topic modeling were conducted on the dataset to derive insights on users' perception of the interpreter. The results show that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keyword in the comments was "tongyeok" meaning both "interpretation" and "interpreter" in Korean. The analysis of keywords associated with the word "interpretation" revealed that the interpreter's delivery skills, expressive skills, understanding ability, and quick wits were the main reasons for the positive response towards the interpreter from the viewers. The four main topics derived from the comments were "Bong's human qualities and acceptance speech", "interpreter's appearance and language ability", "interpreter's interpretation skills", and "general comments about Bong's award-winning and interpretation".

Keywords: interpreter, perceptions, social media, youtube comments, mining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I. 들어가는 말

통역과 번역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도록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통역, 번역, 자막 등이 장벽 그 자체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통역사는 그렇듯 필요악으로 간주되며, 통역사 없이, 번역이나 자막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다고 여겨진다.

2020년 2월 10일(한국시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석권한 봉준호 감독은 가히 '기생충 열풍'을 만들었다. 봉준호 감독은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영화상을 수상하며 번역의 장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자막의 장벽, 장벽도 아니죠.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 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통역: "Once you overcome the one inch tall barrier of subtitles, you will be introduced to so many more amazing films.") -[강혜란. (2020). 옥스퍼드 문서위조학과 통했다… 봉준호가 넘은 '1인치 장벽'.]

봉준호 감독의 위 수상소감은 수많은 외신[1]에 의해 미국인의 자막 거부증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수상소감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을 통해 통역사를 접한 외신들은 샤론 최를 "이름없는 영웅(unsung hero)"[2], "오스카 시즌의 MVP(Oscar season's MVP)[3]"라고 칭송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통역과 번역이 '소통에 있어서의 장벽'이 아니라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막이 있는 외국영화의 아카데미 석권과 전세계가 주목한 봉준호 감독의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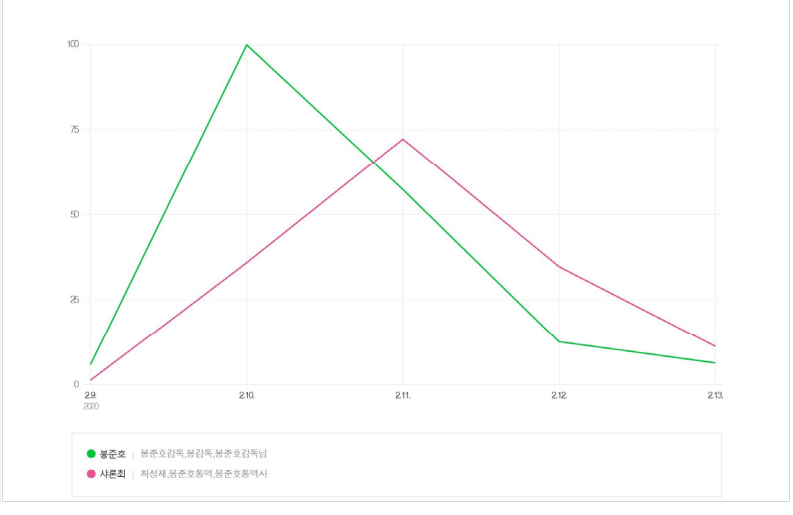
1)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기생충 이후 아직도 자막이 미국인들에게 1인치 장벽인가(After 'Parasite,' Are Subtitles Still a One-Inch Barrier for Americans?)"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인들의 자막에 대한 거부감을 지적했다. (Garcia, S. (2020). After 'Parasite,' Are Subtitles Still a One-Inch Barrier for Americans?.)

2) Ritschel, C. (2020). Oscars viewers praise Parasite director's 'incredibly brillant' interpreter Sharon Choi.

3) Sharf, Z. (2020). Bong Joon Ho's Translator Sharon Choi Publishes Essay on Her 'Parasite' Oscar Season Journey.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상소감 통역으로 통번역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된 것과 더불어 봉준호와 그의 통역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았다. 동아일보[4]는 NHN[5]의 키워드 분석결과를 공유하며 아카데미 시상식을 기점으로 대중의 관심이 영화 기생충에서 봉준호 감독으로 옮겨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아카데미 시상식 익일을 기점으로 대중들의 관심은 봉준호에서 봉준호의 통역사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1>의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에 따르면 봉준호의 통역사 '샤론 최'에 대한 검색 조회수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국내에 중계된 10일의 익일인 11일부터 봉준호 감독에 대한 조회수를 추월한다.



<그림1>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 봉준호 vs 샤론 최

본 연구는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가 대중으로부터 이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통역이 포함된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을 분석해 유튜브상의 콘텐츠 수용자가 통역에 대해 어떤

4) 동아일보. (2020). 오스카로 영화보다 주목받은 '봉준호'…NHN, '기생충 열풍' 분석.
5) NHN ACE는 자사 데이터 관리 플랫폼 'ACE DMP'를 활용, PC·모바일 웹사이트의 키워드 유입 데이터를 분석해 '인사이트 리포트: 기생충 편'을 3일 공개했다(NHN ACE. (2020). NHN ACE 인사이트 리포트 기생충 편.)

[Provider:eartricle] Downloade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봉준호 감독 통역사의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유튜브상의 다른 통역 콘텐츠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은 사례이고,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인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사례이기 때문이다(이수범과 서민혜, 2017: 35).

지금까지는 통역이 포함된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용자들이 통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분석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콘텐츠가 부족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외국영화 최초의 오스카 석권과 같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기념비적인 이벤트이면서 통역이 개입되는 이벤트 자체가 흔치 않은 것이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영상에 통역사가 출현하는 경우가 드물다. 일반적으로 통역사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지며, 방송이나 기자회견에서 순차통역을 할 때도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난 곳에서 주로 목소리만 출연하거나 기자회견 당사자의 뒤에 숨다시피 통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 간 바둑대결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통역사가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것은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 일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봉준호의 통역사였던 샤론 최는 물론 전문적인 통역 교육을 이수한 전문 통역사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봉준호의 통역사는 콘텐츠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통역사였고,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한, 전문 통역사가 만든 샤론 최 통역에 대한 유튜브 리액션 영상이나 전문 통역사가 기고한 칼럼[6]을 보면 그의 통역 실력에 대해 복수의 전문 통역사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생충 열풍의 숨은 주역으로 거론되는 통역사 샤론 최에 대한 콘텐츠 수용자의 인식 분석은 소셜미디어상의 통역사 인식 분석을 위한 적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통번역 시장과 통번역학계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언택트(Untact[7]) 사회로의 전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화상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통역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샤론 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Web 2.0 시대를 맞아 통역의 이해관계자가 단순히 통역사, 통역 의뢰인, 일차적인 청중

6) 곽중철. (2020). [왜냐면] 한국인 1호 통역사가 본 ‘봉준호 통역사’ 최성재.

7) ‘언택트’는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비대면’을 의미하며, 2017년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처음 언급되었다(김난도 외 7명, 2017).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을 넘어서 방송 시청자와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수용자 등으로 확대되면서 통역사의 가시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통역에 대한 리액션 영상, 패러디 영상, 교육 콘텐츠로의 재활용 등으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점차 생겨나고 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통역사가 기계번역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통번역학 역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강지혜, 2010; 최희경, 2015; 조준형, 2019 등).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통번역학 연구의 대상을 다양한 매체와 통역 소비자로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행위로서의 통역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자연어 처리 등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봉준호 수상소감' 통역사 사례를 통해 '소셜미디어 수용자'라는 통역의 새로운 소비자가 통역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문제에 주목했다.

첫째, 유튜브상의 통역 콘텐츠 수용자는 어떠한 인식 특성은 보이는가?

둘째, 유튜브 콘텐츠 수용자가 봉준호의 통역사 샤론 최와 관련해 주목한 요소는 무엇인가?

상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유튜브상의 통역 콘텐츠인 '봉준호 수상소감' 동영상의 댓글에서 발견되는 포괄적인 주제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서 통역과 함께 출현하는 키워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통역사의 역할과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통역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푀히하커(Pöchhacker, 2006/2014)는 통역학의 층위를 신경학, 인지, 텍스트, 상호작용, 제도, 사회·직업, 인류학의 7가지로 나눈 바 있다. '인식'이란 타자 또

는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갖는 신념을 의미한다(스트리커와 힐만(Stricker & Hillman), 1996). 통역사 인식에 관한 연구는 통역사라는 직업과 사회적 행위로서의 통역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푀히하커의 7개 층위에서는 '사회·직업' 층위에 속하게 된다.

이 '사회·직업' 층위에서도 지금까지 통역사 인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직업'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세튼과 리앙리앙(Setton & Liangliang), 2009; 카탄(Katan), 2011). 이러한 연구는 주로 "전문통역사 자신의 관점(self-representation)을 소개한 것"이다(이상빈, 2013: 92). 다시 말해, 통역사의 직업세계와 정체성에 대한 통역사 스스로의 인식에 관한 연구로서 통역사 집단 내부의 관점을 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긴 하지만 '사회'라는 영역에서의 통역사 인식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즉, 통역사 집단 외부의 제3의 수용자가 통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언론에서는 통역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등에 대한 연구이다. 네이피어(Napier, 2011)는 수화통역에 관한 호주 수용자와 통역사의 인식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대한 내용분석 방법론을 사용해 분석했으며, 일반 청중 대비 청각 장애를 가진 청중이 통역사의 '태도(attitude)'와 공동체 기여와 같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많음을 시사했다. 오정근과 임형택(2018)은 관광통역안내사에 관한 미디어 인식변화를 내용분석을 통해 제시했으며, '관광안내' 등과 같은 관광통역안내사의 본질적인 역할수행에서 '문화 사절 역할', '여행국가 이미지 제고', '수익창출 및 고용창출'과 같이 사회적인 역할로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감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지역사회통역의 특정 하위영역으로 그 범위가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통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총체적인 인식"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찰이라고 볼 수는 없다(강지혜, 2010: 10).

통역사 그룹 외부의 통역에 대한 총체적 인식은 주로 언론보도에 드러나는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강지혜(2010)는 프레임(frame) 이론을 바탕으로 통역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해 통역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했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로서 선택과 강조, 해석, 제시 및 배제 등을 통해 패턴화되는 과정을 거친다(기트린(Gitlin), 1980). 강지혜(2010)는 '소통', '수익창출', '다문화 지원', '직업'이라는 4개 프레임으로 통역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뤄짐을 확인했다.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박소영(2020) 역시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통역사가 사회에서 어떻게 투사되는지를 내용분석을 통해 고찰했으며, 통역사라는 직업이 1980년대를 기점으로 남성 직업에서 여성 직업으로 젠더 전환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통역사와 방송직이 결합된 '엔터프리터(enterpreter)' 개념의 통역사들이 소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기술했다.

통번역학의 '사회·직업' 층위에서 이처럼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소셜미디어와 빅테이터, 인공지능, 기계번역 등의 등장으로 통번역학의 저변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적인 행위로서의 통역과 통역사에 대한 인식 연구의 사회적인 맥락 역시 새로운 매체로 확대되어야 하며, 연구방법도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혹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같은 연구방법은 "자기보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최순욱 외 2명, 2020: 18). 또한, 질적인 내용분석의 경우 맥락을 고려한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상대적 장점이 있지만 양적 연구에 비해 비교적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번역학에서 사용되는 현재의 방법론을 보완할 수 있는 빅테이터를 활용한 마이닝 기법 등이 더욱 활발히 활용된다면 풍부한 연구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2. 소셜미디어 연구

소셜미디어가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정근하와 정철우, 2010). 여러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2005년 등장한 유튜브는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 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유튜브는 "국내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이용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기도 하다(최순욱 외 2명, 2020: 12).

젠킨스(Jenkins, 2018)는 문화생산물의 가치가 그 "확산성(spreadability)"에서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즉, 문화생산물이 이용자들에 의해 재사용(reuse), 재작업(reworking), 재분배(redistribution)되면서 그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원본 콘텐츠에 대한 패러디 영상, 리액션 영상 등을 제작하는 이른바 밈(meme)[8]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그 "구전성(viarality)"을 입증해왔다(쉬 외 2명(Xu et al.), 2016). 이를 통해 이용자 주도로 문화콘텐츠가 확산되

는 Web 2.0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튜브는 문화생산물의 가치를 증대시켜왔다. 싸이나 BTS가 단시간에 해외에서 스타로 떠올랐던 것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최순욱 외 2명, 2020: 11).

유튜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용자의 관여에 기반한 참여 문화이다. 이러한 관여(engagement)에는 인지적 관여, 감정적 관여, 행동적 관여가 포함된다(홀빅(Hollebeek), 2011). 행동적 관여의 한 형태가 바로 댓글이다. 댓글은 그 자체로 재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콘텐츠적 요소를 갖추었으며 타인의 의견과 전체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이수범과 서민혜, 2017: 35). 즉, 댓글은 수용자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튜브 동영상 댓글이나 네이버 댓글 등을 이용한 연구들이 현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이수범과 서민혜, 2017; 유지영과 김미경, 2019; 조정래, 2019; 최순욱 외 2명, 2020 등 다수). 이 중 상당수의 연구들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나 설문과 같은 연구방법 혹은 질적인 내용분석을 사용하고 있으나 점차 비정형적인 빅데이터로부터 주제를 파악해 내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과 같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도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데이터의 수집과 전처리

이 연구는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과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검색 키워드로 ‘봉준호 수상소감’을 사용했고, 조회수 기준으로 가장 상위인 동영상 중에서 수상소감에 대한 통역이 포함된 영상 상위 10개[9]를

8) “밈(meme)”은 도킨스(Dawkins, 1976)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이다.

9) 유튜브 특징 상 조회수는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정확한 조회수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데이터 수집일인 2020년 4월 4일 기준 분석대상 동영상 중 가장 조회수가 낮은 동영상이 140만회 이상이었고, 가장 높은 동영상은 260만회 이상이었다.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분석범위로 설정했다. 조회수를 기준으로 동영상을 선택한 것은 조회수와 댓글 수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챗조폴로 외 2명(Chatzopoulou et al.), 2010). 해당 동영상의 목록은 <표1>과 같다. 이 영상 10개는 2020년 1월 5일부터 오스카 상 수상 직후인 2020년 2월 11일 사이에 게시된 동영상이며, 분석에 사용된 댓글은 2020년 4월 4일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댓글 수집에는 파이썬(Phython)의 크롤링(crawling) 라이브러리인 셀레니움(Selenium)을 사용했다. <표1>의 10개 동영상에 게시된 댓글 중 댓글에 대한 댓글인 대댓글은 상호참여적인 성격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제외하고 댓글만을 수집했다. 또한, 영어와 이모티콘으로만 입력된 댓글은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된 댓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했다. 이를 통해 수집된 10개 동영상의 댓글 수는 총 4,192개이다.

크롤링된 댓글을 정제하기 위한 전처리에는 파이썬의 판다스(Pandas) 라이브러리와 코엔엘파이(KoNLPy) 패키지를 사용했다. 코엔엘파이 패키지에 포함된 꼬꼬마(kkma)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모든 댓글에서 명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어를 추출했다. 또한, 파이썬 함수를 사용해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추출된 어휘 목록에 포함된 '것'과 같은 한 글자 어휘, 'ㅋ', 이모티콘과 같은 불용어는 삭제하여 데이터를 정제했다.

<표1> 분석대상 동영상 목록

번호	동영상 (각 동영상의 조회수: 140만~260만회/ 게시일: 2020.01.05.- 2020.02.11)
1	아카데미를 웃기고 감동시킨 최성재 통역-봉준호 감독 콤비 수상소감 결산 / 할리우드 배우들 총집합 리액션
2	기생충 웃음 통역 모음 / 송강호가 봉준호 놀리는걸 더 심하게 통역함 / Sharon Choi 최성재 인터뷰, 수상 소감 [최신]
3	오스카 4관왕 기생충 봉준호 부문별 수상소감+인터뷰 모음 (샤론 최 통역) Bong Joon-Ho's Parasite Oscars 2020 (w Sharon Choi)
4	기생충 오스카 4관왕 미국인 반응?? 92회 아카데미 시상식! 한영 수상소감 보기 (샤론 최 통역사님 사랑해요)
5	[골든글로브현장영상] 할리우드가 감동한 봉감독의 '수상소감'은?
6	봉준호 수상소감, 알고 들으면 소름돋는 샤론 최의 통역 영어

7	헐리우드 스타들을 기립하게 만든 봉감독님의 수상소감은? / 오스카 기생충 최성재(Sharon Choi) 통역-봉준호 감독 수상소감 해석 풀이
8	“언어의 아바타”…외신도 주목한 봉준호 감독 옆 그녀는 누구? / 연합뉴스 (Yonhapnews)
9	‘기생충’ 봉준호 감독 수상소감 연설 스피치 모음 Parasite Bong Joon-Ho Speeches (Feat. 샤론 최 Sharon Choi)
10	‘기생충’ 봉준호 감독 머리속까지 침투? 통역머신 샤론 최(최성재) Bong Joon-Ho's Interpreter Sharon Choi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2. 키워드 빈도분석

동영상의 댓글을 수집·정제한 후에 댓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을 확인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진행했다. 빈도분석 역시 파이썬의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 댓글별로 추출된 어휘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병합한 뒤 판다스 시리즈 데이터로 변환해서 각 단어가 언급된 횟수를 추출했다. 이와 같은 단순 빈도 분석은 댓글 작성자의 관심사를 대변하는 키워드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그 후 빈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 이미지를 생성해 결과를 시각화했다. 워드클라우드는 출현빈도가 더 큰 어휘일수록 단어의 크기가 크게 표현되는 이미지로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3. 연관어 분석

동영상 댓글 중 ‘통역’과 연관된 단어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연관어 분석을 진행했다. 파이썬의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각 댓글에서 동시출현하는 단어 쌍의 빈도를 계산했다. 이와 별도로 ‘통역’과 동시출현하는 단어들 역시 추출했다. 그 후에는 넘파이(NumPy)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동시출현하는 연관어 네트워크를 만들고, 데이터 시각화 툴인 게피(Gephi)를 이용해 이 네트워크의 단어(노드, node)와 단어 간 연결선(엣지, edge)을 그래프로 시각화했다. 또한, 단어 간 연결정도를 나타내는 수치(degree)와 단어 간 근접중심성(closeness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centrality)을 산출했다. 이와 같은 중심성 분석은 전체 연관어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단어가 가진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심성(centrality)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 있다(프리만(Freeman), 1978; 볼란드(Bolland), 1988; 바서만과 파우스트(Wasserman & Faust), 1994). 연결정도 중심성은 한 노드에 연결된 노드의 수를 의미하는 연결정도(degree)를 수식화한 것이고, 근접 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에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인접노드 간 거리를 보여주며, 매개 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하는 중개역할의 정도를 나타낸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 상의 인맥 등과 같은 데이터와는 다르게 이 연구의 대상인 유튜브 동영상 댓글은 노드 간 특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무방향성'의 특징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어휘 간 연결정도와 근접 중심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4. LDA 토픽모델링

빅데이터에서 통찰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마이닝 기법이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텍스트 마이닝은 소셜미디어 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이다(권은영, 2019). 토픽 모델링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말뭉치 속에서 숨겨진 주제를 찾는 데 활용된다(포핑(Popping), 2000). 토픽 모델링 방법중에 잠재 디리클래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각 문서의 단어 분포와 문서 전체의 단어 분포를 통해 주제를 도출하고, 단어별로 각 주제에 속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한다(최원준 외 3명, 2018). LDA 모델은 특정 문헌 내 용어들의 출현빈도를 바탕으로 문헌 내 주제를 도출하고, 그 주제가 문헌 내에서 출현할 확률과 문헌 내에서 해당 주제가 출현할 확률을 계산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제 개수를 몇 개로 할 때 혼란도(perplexity)[10]가 가장 낮아지는지를 확인하여 주제 개수를 설정하고, 도출된 주

10) 혼란도(perplexity)는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다. LDA 모델을 통해 발견할 주제의 수인 K는 사전에 결정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K값을 대입하여 보고, 혼란도가 가장 낮아지는 K값이 LDA를 통해 발견된 주제의 수가 된다.

제에 속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다시 검토하여 '봉준호 수상소감'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서 드러나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V. 분석결과

1.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통역에 대한 높은 관심

키워드 분석 결과 전체 어휘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통역'이었다. 수상의 주체인 봉준호 감독에 대한 언급은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봉준호', '감독', '감독님', '봉감독', '봉감독님'을 포함해 총 736회였다. 반면, 통역사와 관련된 '통역', '영어', '통역사', '샤론', '번역'의 언급은 총 1038회로 수상의 주체인 봉준호 감독 관련 언급 대비 약 41% 가량 더 많았다. '봉준호'와 '감독', '감독님'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역과 관련된 언급이 수상 주체에 대한 언급보다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표2> 상위 30대 키워드별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통역	456
2	진짜	310
3	봉준호	277
4	영화	241
5	영어	239
6	감독	210
7	통역사	176
8	영상	147
9	사람	144
10	대단	124
11	수상소감	122
12	생각	120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13	기생충	111
14	자랑	100
15	감독님	94
16	국뽕	94
17	한국	90
18	샤론	88
19	수상	86
20	봉감독	85
21	감동	84
22	감사	81
23	최고	81
24	번역	79
25	전달	77
26	시상식	76
27	센스	71
28	미국	71
29	봉감독님	70
30	대한민국	64

<그림2>는 빈도 기준 상위 50개 어휘를 사용해 만든 워드클라우드이다. 워크클라우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두드러지는 2개의 키워드는 '통역'과 '봉준호'이다. 그 외 키워드들은 크게 1) 자국민으로서의 긍지 관련 키워드, 2) 통역에 대한 높은 평가 관련 키워드, 3) 언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 관련 키워드 등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자국민으로서의 긍지를 나타내는 키워드로서 ['자랑', '국뽕', '우리', '우리나라', '한국인',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국뽕'[11]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국가'와 '히로뽕'의 합성어로 자국을 최고로 여기는 비뚤어진 애국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키워드들은 해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한 자긍심과 민족적 우월감을 드러내주는 키워드들로

11) "국뽕"이란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도취돼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찬양하는 행태"를 말한다 (김환표, 2014)

해석될 수 있다.

['완벽', '대단', '최고']와 같은 평가어 역시 빈번하게 등장했다. 이 키워드들은 연관어 분석결과 '통역'과 연관된 단어로 파악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키워드 중 ['영어', '언어', 공부']는 봉준호 수상소감 관련 영상을 시청한 후 영어 공부 혹은 언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그림2> 워드클라우드- 빈도 기준 상위 50개 어휘로 구성

2. 연관어 분석 결과: '통역'과 '봉준호' 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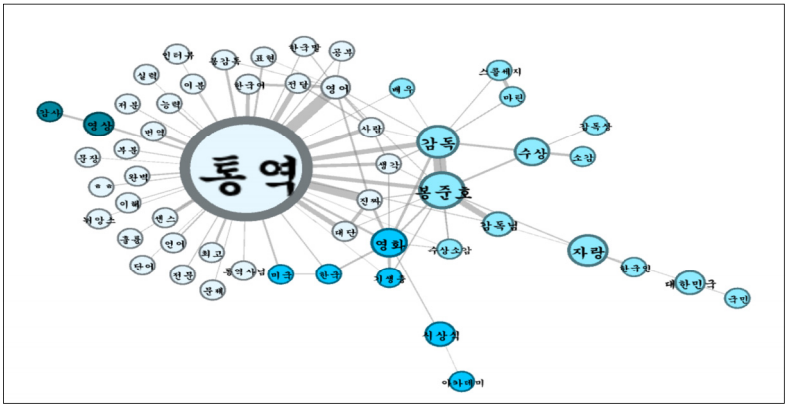
<표3>은 동시출현 빈도가 높은 연관어 쌍의 순위를 보여준다. '전체' 항목은 모든 연관어 쌍을 기준으로 한 순위이며, '통역' 항목은 통역과 관련된 연관어 쌍을 빈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통역'이라는 단어와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단어 중 유의미한 단어들에는 ['대단', '최고', '완벽', '능력'] 과 같이 통역에 대한 높은 평가를 표현하는 단어들과 ['전달', '센스', '한국어', '이해']와 같이 통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와 관련한 단어들이 있다.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표3> 키워드간 동시 출현 빈도

순위	전체		동시 출현 빈도	통역		동시 출현 빈도
	키워드 1	키워드 2		키워드 1	키워드 2	
1	영어	통역	84	영어	통역	84
2	감독	봉준호	83	진짜	통역	72
3	진짜	통역	72	감독	통역	43
4	감독님	봉준호	48	전달	통역	41
5	감독	통역	43	대단	통역	41
6	전달	통역	41	사람	통역	38
7	대단	통역	41	봉준호	통역	37
8	사람	통역	38	센스	통역	34
9	봉준호	통역	37	생각	통역	33
10	센스	통역	34	통역	한국어	31
11	생각	통역	33	번역	통역	29
12	통역	한국어	31	영상	통역	24
13	마틴	스콜세지	31	영화	통역	24
14	대단	진짜	31	봉감독	통역	24
15	번역	통역	29	최고	통역	23
16	영어	한국어	27	통역	표현	21
17	소감	수상	27	미국	통역	20
18	영화	진짜	26	완벽	통역	19
19	기생충	영화	25	능력	통역	18
20	감독	영화	25	언어	통역	18

<그림3>은 연관어 네트워크를 시각화 툴인 게피(Gephi)를 이용해 단어간 연관관계를 도식화한 결과이다. 이 그래프는 총 58개의 단어(node)와 91개의 단어 조합(edge)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연관어는 크게 총 4개의 군집(modularity class)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거의 모든 단어가 '통역'을 중심으로 한 군집과 '봉준호'를 중심으로 한 2개의 군집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타 두 개의 군집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한국 영화 수상' 관련 군집과 '영상에 대한 감사' 군집이다.



<그림3> 연관어 네트워크 Gephi 그래프

<표4>는 이 네트워크에 포함된 주요 단어의 연결정도(Degree)와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을 표시하고 있다.

<표4> 단어간 연결정도(Degree)와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단어 (Label)	연결정도 (Degree)	근접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통역	41	0.736111111
봉준호	12	0.546391753
영어	11	0.504761905
감독	11	0.524752475
영화	9	0.509615385
진짜	5	0.477477477
생각	5	0.486238532
사람	5	0.460869565
자랑	4	0.373239437
수상소감	4	0.481818182
수상	4	0.378571429
전달	3	0.43442623
대단	3	0.460869565
감독님	3	0.473214286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한국	3	0.441666667
기생충	3	0.469026549
한국어	2	0.430894309
한국말	2	0.430894309
표현	2	0.430894309
봉감독	2	0.430894309
공부	2	0.430894309
스콜세지	2	0.348684211
배우	2	0.449152542
마틴	2	0.348684211
대한민국	2	0.276041667
시상식	2	0.344155844
미국	2	0.430894309
영상	2	0.43442623

(1) ‘통역’ 군집: 전달력, 표현력, 이해력, 순발력에 대한 높은 평가

첫 번째 군집은 ‘통역’을 중심으로 하는 군집으로 ‘대단’, ‘완벽’, ‘훌륭’, ‘최고’, ‘전문’ 등과 같이 통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증하는 연관어들이 발견되었다.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는 연관어들 중에는 <표4>에 포함된 ‘전달’과 ‘표현’이 가장 중심성이 높았고, 그 외에 ‘이해’, ‘센스’, ‘뉘앙스’, ‘단어’, ‘문장’ 등이 ‘통역’과 관련성이 있는 연관어로 분석되었다. 통역과 동시출현하는 연관어들을 범주화해본 결과 ‘전달력’, ‘표현력’, ‘이해력’, ‘순발력(센스)’으로 압축될 수 있었다.

또한, ‘영어’, ‘한국어’, ‘언어’, ‘실력’, ‘능력’ 과 같이 통역사의 언어 능력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공부’라는 연관어는 통역 장면을 본 후 영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시청자가 있음을 보여준다.

(2) ‘봉준호’ 군집: 봉준호 감독의 수상과 자긍심

두 번째 군집은 ‘봉준호’를 중심에 둔 군집이다. ‘봉준호’는 ‘통역’이라는 단어에 비해 연결된 단어의 수는 적었으나, 중심성이 큰 연관어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관어로는 ‘감독’, ‘감독님’, ‘마틴 스콜세지’, ‘배우’, ‘감독상’, ‘수상’, ‘수상소감’과 같이 봉준호 감독의 수상 장면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었다. 또한, ‘봉준호’ 관련 연관어 중에는 ‘자랑’, ‘대한민국’, ‘한국인’, ‘국민’과 같이 자국민의 국제 영화제 수상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자긍심 혹은 애국심과 관련된 연관어들이 있었다.

3. 토픽 모델링 결과

수집된 유튜브 동영상 댓글이라는 말뭉치에서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을 진행했다. 토픽 모델링 기법 중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델을 사용해 도출된 상위 4개 토픽과 토픽별 핵심 키워드는 <표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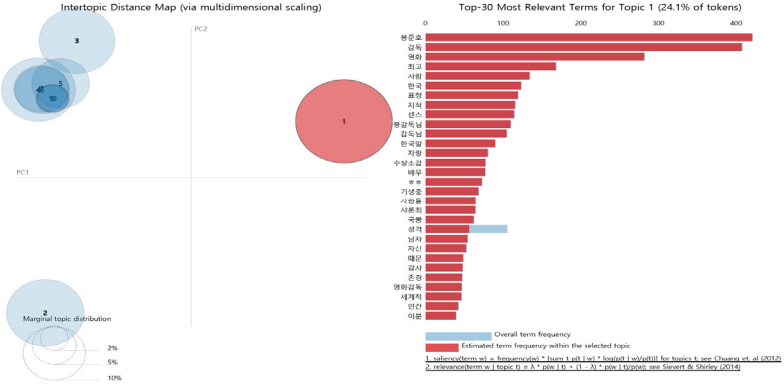
<표5> 봉준호 수상소감 관련 동영상 댓글의 주요 토픽

토픽 번호	토픽	핵심 키워드
1	봉준호 감독의 자질과 수상소감에 대한 평가	봉준호, 감독, 영화, 최고, 사람, 한국, 표정, 지적, 센스, 봉감독님
2	통역사의 외모와 언어 능력에 대한 평가	영어, 통역사, 봉감독, 샤론, 인터뷰, 얼굴, 통역사님, 번역, 한국어, 저분
3	통역사의 통역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	통역, 통역사분, 대단, 미국, 이해, 발음, 사용, 목소리, 세계, 모습
4	수상과 통역 자체에 대한 평가	진짜, 생각, 전달, 언어, 우리나라, 부분, 근데, 의도, ㅠㅠ, 통역

첫 번째 토픽은 ‘봉준호 감독의 자질과 수상소감에 대한 평가’이다. 댓글별 토픽 분포를 보았을 때 해당 토픽의 비중이 큰 댓글들은 겸손함, 센스, 지적임, 언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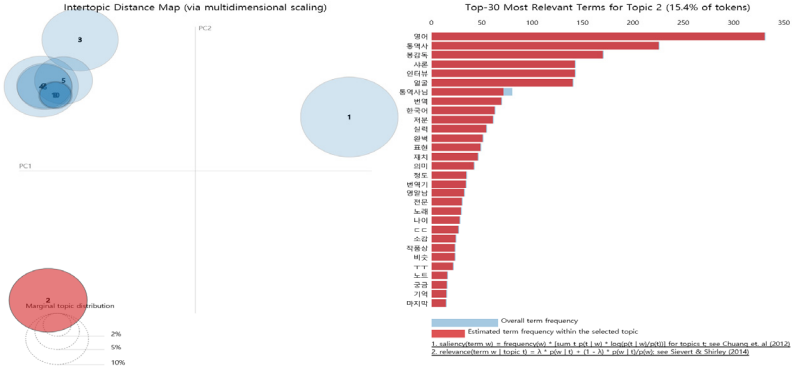
변 등 봉준호 감독의 인품이나 수상소감을 통해 드러나는 봉준호 감독의 재치 등에 대한 평가였다.



<그림4> 토픽 1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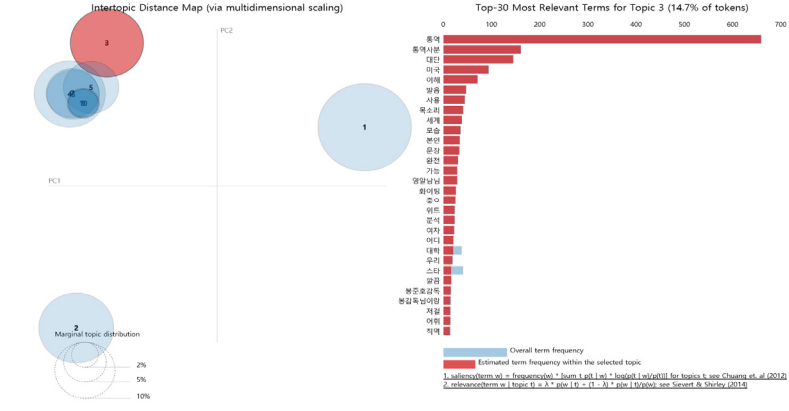
두 번째 토픽은 '통역사의 외모와 언어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해당 토픽이 두드러지는 댓글들을 살펴본 결과 얼굴형, 얼굴상, 표정, 미모, 매력, 다리, 나이 등 통역사의 외모와 통역사가 사용한 노트 등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한 평가가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통역사의 표현력, 영어실력, 기억력 등에 대한 언급도 두 번째 토픽에 포함되었다. 통역사에 대한 높은 평가 요인으로 연관어 분석 시 도출되었던 전달력, 순발력, 이해력, 표현력 중 '표현력'과 '순발력'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두 번째 토픽에서 발견되었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그림5> 토픽 2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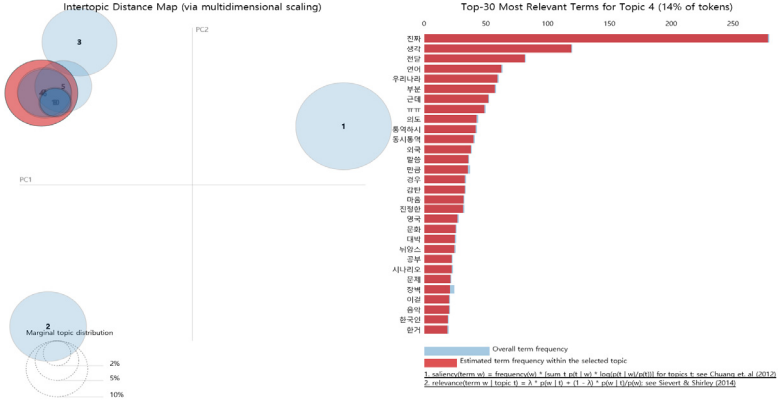
세 번째 토픽은 '통역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이다. 이 토픽의 단어 분포를 보면 수용자들이 가장 높이 평가한 자질로는 '전달력'과 '이해력'이 있다, 댓글 분석 결과, 문맥, 요점, 의도에 대한 이해와 생각의 전달에 대해 언급한 댓글이 이 토픽의 비중이 높은 댓글로 분류되었다. 이 외에도 통역사의 발음, 억양, 톤 등 청각적 요인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었다.



<그림6> 토픽 3 분포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네 번째 토픽은 '수상과 통역 자체에 대한 평가'이다. 우리나라 영화가 수상한 것에 대한 축하와 감탄, 한국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 등이 이 토픽에 포함된다. 또한, 이 토픽의 분포가 높은 댓글들을 확인한 결과 통역사의 통역에 대한 감탄과 비판 등 통역 자체에 대한 평가도 이 토픽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7> 토픽 4 분포

V. 결과 논의

본 연구는 '봉준호 수상소감'을 키워드로 하는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댓글을 수집하고 전처리한 후 정제된 댓글을 이용해 키워드의 빈도분석, 연관어 분석, 토픽 모델링을 수행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봉준호 수상소감'으로 검색한 조회수 기준 상위 10개 동영상의 댓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통역'임을 확인했다. '봉준호 수상소감'으로 검색했을 때 조회수가 가장 높은 동영상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봉준호'나 영화 '기생충'이 아니라 '통역'인 것은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가 영상 시청자들로부터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둘째,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가 이처럼 큰 관심을 받는 이유를 알아보는 방안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으로 동영상 댓글 내의 연관어 분석을 실행했다. 연관어 분석에서 단어 간 연결 정도와 근접중심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댓글 내 가장 많은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고, 중심이 되는 단어 역시 '통역'임을 확인했다. 연관어 네트워크에서는 크게 '통역' 군집과 '봉준호' 군집이 발견되었고, 통역과 관련된 연관어는 주로 통역에 대한 높은 평가와 그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댓글 분석 결과, 봉준호 감독 통역사에 대한 높은 평가 요인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전달력', '표현력', '이해력', '순발력'의 네 그룹으로 범주화될 수 있었다.

셋째, 동영상 댓글의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고, 토픽별 댓글을 확인한 결과 댓글 뭉치에서 발견된 상위 4개 주제는 '봉준호 감독의 자질과 수상소감에 대한 평가(24.1%)', '통역사의 외모와 언어능력에 대한 평가(15.4%)', '통역사의 통역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14.7%)', '수상과 통역 자체에 대한 평가(14%)'였다. 토픽의 분포를 보았을 때, 통역사에 대한 평가는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그런데, 그 중 통역사의 통역사로서의 자질보다 통역사의 외모와 언어능력에 대한 평가가 다소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상의 주인공인 봉준호 감독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안면주의(Face-ism)"가 유튜브 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박주하, 2020: 43). 또한, 이는 국내에서 통역사라는 직업이 여성 직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이란 수식어가 여성 통역사에게 사용될 뿐 아니라 통역사의 외모에 주목하는 기사들이 많아졌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박소영, 2020: 99).

또한, 통역사의 영어능력에 대한 관심은 한국인의 외국어수용에 관한 인식 혹은 통역에 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우선, 한국인의 외국어수용에 관한 인식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인의 영어에 대한 학구열과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혹은 '영어를 잘하면 통역을 잘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Ⅵ. 나가는 말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 샤론 최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댓글을 분석한 결과,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통역 콘텐츠 수용자의 인식과 샤론 최가 화제가 된 이유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라는 소셜미디어상에서 확인된 콘텐츠 수용자의 통역사에 대한 인식은 크게 '통역사의 외형적 모습'과 '외국어 실력', '통역사로서의 자질'로 나뉠 수 있었으며, 이 외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통역사에 대한 외부의 인식이 통역사라는 본질적인 역할에서 다문화 지원, 수익 창출 등 사회적인 역할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 기존 선행연구(네이피어, 2011; 강지혜, 2010; 오정근과 임형택, 2018)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소셜미디어상에서의 통역사에 대한 수용자 인식이 언론 등에서 드러나는 외부 인식과 그 특성이 다르다면, 그 차이와 함의에 대한 더욱 자세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봉준호 수상소감' 유튜브 동영상의 콘텐츠 수용자들은 1) 통역사 샤론 최의 외모, 나이, 표정, 노트 사용 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에서의 매력, 2) 외국어 능력과 3)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통역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통역'과 연관된 키워드들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표현력', '순발력', '전달력', '이해력'이라는 네 가지 범주 중 '표현력'과 '순발력'은 외국어 능력과 결부가 되었으며, '전달력'과 '이해력'은 통역사 자질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생각이나 의도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통역사의 자질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서 드러나는 통역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봉준호 수상소감'으로 키워드를 국한해 조회수 기준 상위 10개 유튜브 동영상만을 사용해 댓글수가 방대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유튜브 댓글을 이용한 수용자 인식 관련 양적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댓글 수가 적게는 2000개 내외에서 많게는 1만개 내외로 수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이수범과 서민혜, 2017; 권은영, 2019; 유지영과 김미경, 2019 등), 통번역학 분야에서의 소셜미디어 연구는 확연히 작은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로 국한되어 있다(배소연, 2020). 그러므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상의 통역사 인식을 연구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데이터 규모를 키워서 더욱 세밀한 양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거나 질적인 분석을 함께

수행해서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상에서의 통역 관련 콘텐츠의 생산 양상뿐 아니라 수용자들의 콘텐츠 재배포, 재생산 등의 양상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문화생산물로서의 통역의 가치를 조명해보고, 통역사의 역할과 통역업계의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촉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참고문헌

강지혜. (2010).「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통역에 대한 인식 연구」.『번역학연구』, 11(3), 7-39.

권은영. (2019).「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본 대중의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인식: 유튜브를 중심으로」.『영어학』, 19(4), 858-879.

김건, 윤혜정. (2016).「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서울지역 호텔서비스에 대한 고객 인식의 변화 분석」.『서비스경영학회지』, 17(3), 217-231.

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최지혜, 이수진, 서유현. (2017).『트렌드 코리아 2018』, 서울: 미래의 창.

김환표. (2014).『트렌드 지식사전 2』. 서울: 인물과 사상사.

박소영. (2020).「언론의 통역사 보도에 나타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통역과 번역』, 22(1), 79-104.

박주하, 전재훈. (2020).「패션 유튜브에 표현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연구-영상 및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0(1), 35-53.

배소연. (2020).「소셜미디어 시대의 통역사 연구: 통역사의 인스타그램 이용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통번역학연구』, 24(1), 69-96.

블랙모어, S. (2010).『밈』. (김병남 역). 서울: 바다출판사. (Original work published: Blackmore, S. (1999). *The Meme Machi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오정근, 임형택. (2018).「관광통역안내사에 관한 미디어 인식변화 고찰: 언론기사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관광레저연구』, 30(8), 39-55.

유지영, 김미경. (2019).「한국 전통춤과 K-pop 댄스의 융합: 2018 MMA 방탄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소년단 'IDOL' 유튜브 댓글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8), 189-198.

이부영, 차재호, 황필호. (1985). 『한국인의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상빈. (2013). 「국내 학부 통역전공자 인식 조사: 통역 교육 및 통역사 직업에 관한 소규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14(4), 91-113.

이수범, 서민혜. (2017). 「유튜브 (Youtube) 댓글을 통해 살펴본 한국인의 외국인 수용성 연구: 백인과 흑인의 인종적 차이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5(5), 33-57.

정근하, 정철우. (2010).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미래예측 방법 연구』.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정래. (2019). 「'SKY 캐슬 신드롬'에 대한 인식 유형 탐구: 네이버 댓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2-52.

조준형. (2019). 「4 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번역학의 방향: 빅데이터로서의 코퍼스의 역할과 기능」. 『번역학연구』, 20(2), 153-182.

최순욱, 최성인, 이재현. (2020). 「유튜브에서의 뮤직비디오 팬덤 분석: BTS M/V의 시청, 댓글 상호작용, 밈 영상 제작」. 『한국언론학보』, 64(1), 7-45.

최영. (2001). 「영어사용에 관한 한국인의 의식」. 『영어교육연구』, (22), 153-181.

최원준, 설재욱, 정희석, 윤화묵. (2018). 「국내 학술논문 주제 분류 알고리즘 비교 및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8), 178-186.

최희경. (2015).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 연구: 국내외 연구 동향과 과제」. 『번역학연구』, 16(2), 317-338.

푀히하커, F. (2014). 「'사회적 연구로의 이동' 통역연구의 경로와 패러다임」. 『통번역의 사회문화적 측면』. (이주연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Original work published: Pöchhacker, F. (2006). "Going social" On pathways and paradigms in interpreting studies. In A. Pym, M. Shlesinger, & Z. Jettmaravá (Eds.), *Sociocultural Aspects of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pp. 215-232). Amsterdam: John Benjamins).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Bolland, J. M. (1988). "Sorting out centrality: An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four centrality models in real and simulated networks," *Social Networks, 10*(3), 233-253.

Chatzopoulou, G., Sheng, C., & Faloutsos, M. (2010, March). A first step towards understanding popularity in YouTube. In *2010 INFOCOM IEEE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s Workshops*, 1-6. IEEE.

Dawkins, R. (1976). *The Selfish Ge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reeman, L. C. (1978).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3), 215-239.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ollebeek, L. (2011). Exploring customer brand engagement: definition and themes. *Journal of strategic Marketing*, *19*(7), 555-573.

Jenkins, H., Ford, S., & Green, J. (2018). *Spreadable media: Creating value and meaning in a networked culture* (Vol. 15). New York: NYU press.

Katan, D. (2011). Occupation or profession: A survey of the translators' world. *Identity and Status in the Translational Professions*, 65-87.

Napier, J. (2011). "It's not what they say but the way they say it.": A content analysis of interpreter and consumer perceptions of signed language interpreting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207*, 59-87

Popping, R. (2000).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London: Sage Publication.

Setton, R., & Liangliang, A. G. (2009). Attitudes to role, status and professional identity in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with Chinese in Shanghai and Taipei.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The*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Journal of the America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Association, 4(2), 210-238.

Stricker. G., & Hillman, J. L. (1996).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The perceived value of grandparent as a social ro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3*(2), 71-79.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Vol. 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Xu, W. W., Park, J. Y., Kim, J. Y., & Park, H. W. (2016). "Networked cultural diffusion and creation on YouTube: An analysis of YouTube mem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60*(1), 104-122.

<인터넷 자료>

강혜란. (2020). 옥스퍼드 문서위조학과 통했다…봉준호가 넘은 '1인치 장벽'. https://news.joins.com/article/23679596 에서 2020년 4월 11일 검색.

곽중철. (2020). [왜냐면] 한국인 1호 통역사가 본 '봉준호 통역사' 최성재.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26095.html 에서 2020년 4월 11일 검색.

동아일보. (2020). 오스카로 영화보다 주목받은 '봉준호'…NHN, '기생충 열풍' 분석.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3/99984667/1 에서 2020년 4월 11일 검색.

NHN ACE. (2020). NHN ACE 인사이트 리포트 기생충 편. https://www.acecounter.com/www2/files/NHNACE_InsightReport2020_Parasite.pdf 에서 2020년 4월 11일 검색.

Garcia, S. (2020). After 'Parasite,' Are Subtitles Still a One-Inch Barrier for Americans?. Retrieved April 11, 2020, from the New York Times' website: https://www.nytimes.com/2020/02/12/movies/movies-subtitles-parasite.html

Ritschel, C. (2020). Oscars viewers praise Parasite director's 'incredibly brillant' interpreter Sharon Choi. Retrieved April 11, 2020, from Independen

[Provider:eartr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

t's website: https://www.independent.co.uk/life-style/oscars-parasite-sharon-choi-interpreter-translater-korean-english-bong-joon-ho-a9326286.html

Sharf, Z. (2020). Bong Joon Ho's Translator Sharon Choi Publishes Essay on Her 'Parasite' Oscar Season Journey. Retrieved April 11, 2020, from Indiewire's website: https://www.indiewire.com/2020/02/sharon-choi-bong-joon-ho-translator-essay-oscar-season-1202211986/

이름: 권상미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주소: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7
이메일: sangmi.kwon@gmail.com

논문투고일: 2020년 6월 11일
심사완료일: 2020년 7월 14일
게재확정일: 2020년 7월 23일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21.83 at Thursday, February 25, 2021 9:39 AM